



칼로리·도수↓
라이트 맥주
계절 왔다
니



Life

K-뷰티
디바이스 들고
중시장 정조준
L2



지역사회와 함께 차곡차곡... 내일의 '희망 저금통' 채워요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1963년 경상남도 산청 하둔마을 회관에 처음 문을 열었다. 지역 단위 협동조합으로 첫선을 보이면서 금융혜택을 누리기가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 주민의 저축을 도왔다. 60년이 흐른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 287조원, 고객수는 2200만명에 이른다. 지점은 본점을 포함해 3218곳이다.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이 꼭 맞다.

체급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회공헌활동과 ESG 경영에도 적극적이다.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환원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포부다.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한다'는 뜻의 상부상조 정신을 토대로 설립한 금융기관인 만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이웃으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이다.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4대 핵심분야(소셜MG·그린MG·휴먼MG·글로벌MG)를 통해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최훈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왼쪽 두번째)가 새마을금고 약수지점에서 열린 'MG희망나눔 용용적금' 첫 가입 행사에서 가입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하남시 나들초등학교 어린이들이 'MG가 그린 환경 교실'을 통해 청바지를 이용한 업사이클 교육을 듣고 있다.

◆ 저출생 위기 극복, 지역사회 환원

'소셜MG' 분야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사회와 상생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올해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생애 첫 통장 개설 출생아에게 1인당 최대 20만원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했다. 아울러 출생아를 대상으로 최대 연 12%의 금리를 제공하는 'MG희망나눔 용용적금' 상품을 개발했다. 5만좌까지 총 78억원의 이자를 조성했다.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고객과 소통한다. 지역주민에게 생활용품 등 물품을 지급했다. 이어 MG체크카드와 연동해 지원금을 주는 '내수경제 활성화 지원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지원 43억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했다. 지난해에는 캐시백 형태로 총 3억3000만원을 마련했다. 올해 사업규모는 총 10억원으로 책정했다.

지난 2018년부터 'MG희망나눔 소셜성장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청년소셜벤처 130곳에 총 53억원의 ▲성장지원금 ▲홍보 및 컨설팅 ▲기업 간의 네트워크 형성 지원을 단행한다.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청년 마을·청년기업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의 성격을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한다. 창업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10억원을 지급한다.

◆ 친환경 녹색성장, 취약계층 지원

'그린MG'는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해 추진 중인 분야다. 지난 2021년부터 전국 새마을금고인이 참여해 분기별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걷기 실천을 통한 걸음 기부 활동인 '그린MG 걷기 좋은 날'을 올해로 4년째 추진 중이다. 그동안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들만 참여하던 내부 행사였지만 올해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확대했다.

걷기 행사에는 시민 약 1만7000명이 참여했다. 목표 기부걸음인 10억 걸음을 초과 달성해 배려계층 노인 61명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1억원을 기부했다.

'휴먼MG'는 미래를 위한 투자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을 도모한다. 문화 및 생활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배려계층 지원사업의 비중을 높여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사랑의 줌도리'는 전통을 자랑하는 행사다. 지난 1998년 시작했다. 그동안 회원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조성한 1143억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했다. 올해는 추진 기간을 기존 연 1회에서 상·하반기 각각 1회로 확대했다. 앞으로 사랑의 줌도리는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



1970년대 부녀자들이 마을금고에 저축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새마을금고 초청연수 중 구글 코리아에 방문한 피지 농어촌개발부 공무원 등 연수생들이 피지 새마을금고 디지털 전환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도서산간 주민 저축 도우며 문 열어 상부상조 정신으로 지역사회와 상생

저출생 극복 위한 '출생축하금' 지원 4년째 걷기행사 열어 걸음기부금 전달 자립준비청년 진로교육, 후원금 마련

개발도상국에 새마을금고 모델 전파 금융교육, 저축장려 등 자산관리 도와

할 계획이다.

청소년 보호시설을 후원해 자립을 돕는다. 그룹홈과 자립 준비 청년을 지원하는 'MG드림 하우스' 사업을 지난 2021년부터 추진했다. 그룹홈 총 26곳에 8억원을 기부했다. 하반기에는 그룹홈 12곳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립 준비 청년 50명의 홀로서기를 위해 진로교육을 마련하고 후원금 4억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 세계로 뻗어 나가는 후원 사업

'글로벌MG'는 기술 원조로 전 세계 금융소외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새마을금고 모델을 전파하는 사업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새마을금고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절약 및 저축을 도와 마을주민 스스로 자금을 조성하게 만들어 자립 능력을 키운다. 빈곤 감소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 금융포용시스템을 전수한다. 한국의 대표 금융 공적원조(ODA) 사업이란 설명이다. 지난 2016년 미얀마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우간다, 라오스 3개국에 새마을금고가 57곳을 설립했으며 1만7000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사업 대상국을 피지와 캄보디아로 확대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총 10일간 MG새마을금고 인재개발원에서 피지 새마을금고 전국 확산을 위한 초청연수를 펼쳤다. 피지 농어촌개발부와 협동조합부 등 2개 부처와 공무원, 마을주민 등 총 10명이 머리를 모았다.

캄보디아 진출에도 눈길이 간다.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새마을금고 금융포용모델 사업 소개 워크숍'을 진행하면서다. 앞서 캄보디아 농촌개발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한 온라인연수가 가교 역할을 했다. 앞으로 캄보디아 내 금융교육과 저축장려 등 동등 자산 확대 방안을 함께 고민할 계획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김인 회장은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기업의 ESG 경영이 사회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새마을금고는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금융협동조합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스페인, 잉글랜드 꺾고 유로 2024 우승... 통산 4번째 정상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인생 마지막 도전...응원 부탁" /사진 뉴시스

▲김하성, 애틀랜타전서 안타·볼넷·도루·득점...타율 0.226로 전반기 마감
▲방탄소년단 진, '파리 올림픽' 성화봉송에 '인산인해' 큰 환호성



▲한국 사격, 8년 만에 '금빛 총성' 도전 /사진 뉴시스
▲'포스트 장미란' 박혜정, 역대 '도쿄 노메달' 설욕 선봉장